

(재)부산문화재단 2019-021

WINTER 2019 겨울호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부산통신사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www.tongsinsa.com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CONTENTS

04 권두칼럼
 타나베 노부히로 田辺信宏 시즈오카시 시장
 조선통신사로 연결되는 부산과 시즈오카

06 성신교린
 한태문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 회고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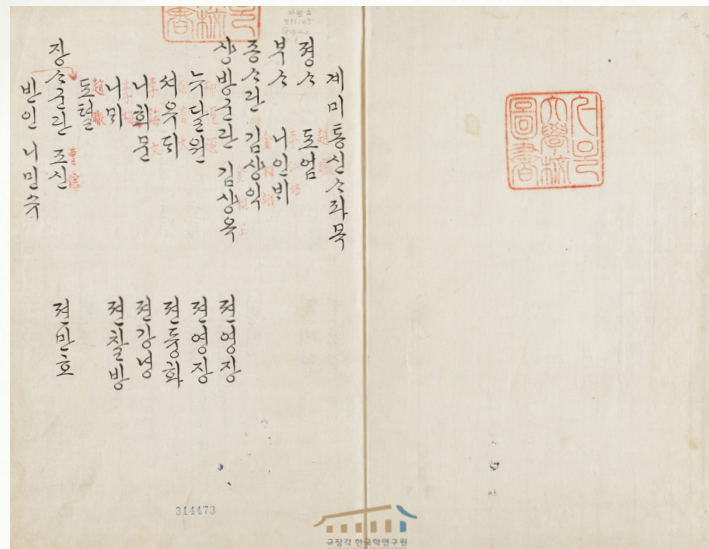
08 기획특집
 나카지마 카즈히코 中島一彦 시즈오카시 관광문화교류국
 거리는극장 추진과 추진감
 박종원, 오장욱, 김인기, 이영주 한국측 아티스트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

14 조선통신사 24時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
 조선통신사 역사관 소식
 - 조선통신사 역사관 NEWS
 - 2019 조선통신사 국내 연구지 캠프

18 조선통신사 갤러리
 박화진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시즈오카현静岡県の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찾아서
 - 세이켄지清見寺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일동장유가 日東壯遊歌

Illdongjangyuga
 (Kim Ingyeom's poem written during a travel to Japan)



1763 | 김인겸 金仁謙 | 책자 冊子 | 종이에 묵서 紙本墨書 | 22.1 x 31.3cm |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763년(영조 39) 통신사행에 서기로 참여한 김인겸金仁謙(1707~1772)의 사행록이다.

1763년 8월 3일 출발부터 1764년 7월 8일 돌아와 귀국 보고할 때까지

약 11개월간의 견문을 8,243구의 순한글 가사로 기록하였다.

순한글 사행문학으로 국내 노정 지역과 일본의 노정 지역에 대한 개인의 정감이 잘 드러나 있다.

발행일 2019. 12. 19 발행인 강동수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744.7707
 편집위원 한태문, 백태현, 이주영
 편집기획 문화유산팀 김보미, 강민규, 김지은
 Tel 051.631.0858 www.tongsinsa.com
 디자인 제작 코리아기획 Tel 051.204.7879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2019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타나베 노부히로 田辺信宏
시즈오카시 시장

조선통신사로 연결되는 부산과 시즈오카

시즈오카시와 부산문화재단과의 교류는 2007년에 개최된 오고쇼大御所 400년제가 계기가 된다. 이후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문화 교류를 계획해 왔다. 2017년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더욱 문화 교류 발전을 계획하면서 조선통신사의 의의와 역할을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 계승하는 사업을 전개해 가고 있다.

조선통신사를 한번 더 되돌아보며, 조선통신사로 연결된 이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지기를 소망한다.

시즈오카시와 조선통신사

시즈오카시와 조선통신사의 관계는 1607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 왕조와의 국교 회복을 위해 제1회 사절단을 받은 것이 시작입니다. 제1회 사절단은 왕복 여정 모두 시즈오카시의 세이켄지에 머물며 후지산 등 경관을 즐기며 스푸성駿府城(시즈오카시)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선통신사는 국서 교환이 주요 임무였지만, 일본 각지에서 문화 교류를 실시하여 조선의 다양한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야스가 원한 '평화'와 '선린우호'는 이에야스가 사망한 후에도 이어져 사절단 파견은 약 200년간, 총 12번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에도江戶막부가 선린우호 정신을 바탕으로 국서를 계속하여 교환한 것은 조선 왕조뿐이었습니다. 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빛나는 우호의 역사에 시즈오카시는 제1회 사절단을 맞이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고지로서 의미 있는 장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즈오카시와 부산문화재단

시즈오카시와 부산문화재단의 교류는 2007년에 시즈오카시에서 진행된 오고쇼大御所 400년제에 부산문화재단이 조선통신사 행렬과 공연에 참가한 것이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후 매년 5월에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조선통신사 축제에 시즈오카시에서 예술 단체를 파견하고, 매년 10월에 시즈오카시에서 개최하는 조선통신사 사업에 부산문화재단이 참가하는 등 서로 지속적인 왕래를 통해 교류가 깊어졌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관계자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조선통신사에 관한 자료 111건 333점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17세기~19세기 한일 평화 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개최된 등재 기념 행사에는 시즈오카시도 참가하여 부산문화재단과 더욱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평화 외교', '선린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를 이제부터 일본을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로 계승하여 이어나가기 위해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젊은 세대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 2018년 조선통신사 축제에는 시즈오카현립 시즈오카 상업고등학교 응원단·치어리딩부, 2019년에는 중학생·고교생·대학생으로 구성된 시즈오카성내 일륜차-輪車 클럽을 파견하여 젊은 세대간의 교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10월 시즈오카시의 조선통신사 사업에서는 곤란한 장벽에 2번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 간의 대립에 따른 관계 악화입니다. 이 때문에 각지에서 예정되어 있던 한일 공동 사업이 차레차레 중지되어, 본 사업도 중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조선통신사가 가진 평화적 의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여 서로 조정을 거듭하여 사업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태풍 19호(하기비스) 사태였습니다. 교류 사업 예정일에 시즈오카시에 태풍이 직격한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일 교류 사업은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선통신사가 가져온 문화 교류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관계 단체의 서포트로 다음날 부산 예술 단체의 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정한 규모의 한일 예술 단체 교류는 어려웠지만, 한국 전통 예술·음악을 접하면서 조선통신사가 이뤄낸 역할과 의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이어준 교류와 미래

이렇듯 시즈오카시와 부산문화재단은 조선통신사로 교류가 더욱 깊어졌지만, 한층 더 깊은 교류 심화를 목적으로 향후에는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거리예술(다이드게)'을 통한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즈오카시는 매년 11월에 국내외에서 거리예술 아티스트를 초청한 '다이드게 월드컵 in 시즈오카'를 개최하고 있는데, 시즈오카시에서 '거리예술'은 친숙한 것입니다. 올해 5월에 부산시에서 진행된 '조선통신사 축제'에는 시즈오카시에서 거리예술 아티스트를 파견하여, 부산시의 많은 사람들이 시즈오카의 '다이드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부산문화재단의 협력으로 '다이드게 월드컵 in 시즈오카 2019'에 부산시에서 활약중인 아티스트 3개 팀이 출연하였습니다. 이렇듯 시즈오카시와 부산시가 각각 아티스트를 파견하면서 문화 교류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부산문화재단과 보다 나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400년전에 한일 관계 회복에 힘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던 평화정책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정신이 현재에도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통신사로 보는 우호 역사에 빛을 비춰 상호간의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짐과 동시에 국제 연합이 목표하는 SDGs(지속 가능 개발 목표) 이념을 실천하면서, 이제부터 세계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공헌하는 사업을 펼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선통신사의 의의와 그것이 이뤄낸 것을 차세대에 전달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신교린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 회고와 과제



한태운 부산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2주년, 회고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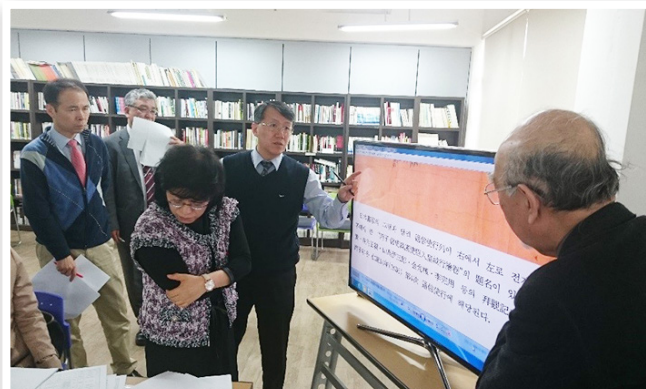
2017년 10월 31일 오전 2시 54분. 휴대전화로 부산문화재단 사무국에서 보낸 문자가 들어왔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실에서 제자들과 밤을 지새우며 최종 교정을 끝낸 신청서를 부산우체국을 통해 유네스코 본부로 보낸 지 꼭 1년 7개월 만의 낭보였다. 순간, 기쁨보다 이제야 긴 터널을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공동 등재를 위해 달려온 지난 2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양국이 뒤틀려 있는 상황에서 공동 등재는 꿈같은 소리라는 이도 있었고, 나서서 일본 좋은 일만 시킨다며 빈정대는 이들도 있었다. 나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조선통신사' 분과에 구성원으로 참여했지만, 양국 위원들의 합의는커녕 공동보고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각각 보고서를 냈던 아픈 기억도 있던 터였다.

하지만 이번 등재사업은 출발부터 달랐다. 양국의 정부가 아니라 오랫동안 조선통신사 선양사업을 펼쳐 온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NPO 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등 두 민간단체가 주체로 나섰다. 사실상 두 단체를 이끌어오며 오랜 친분을 유지해 온 강남주 한국 측 학술위원장과 마쓰바라 가즈유키(松原一征) 일본 측 추진부회 회장이 앞장을 섰다. 게다가 참여한 이들도 『대계 조선통신사』를 펴낸 나카오 히로시(中尾宏) 일본 측 학술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선통신사'에 관한 한 양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오로지 서로의 '학자적 양심'을 믿고 공동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총 111건 333점의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을 등재 대상 목록에 올릴 수 있었다.



2차 한일공동학술회의(일본 나가사키현, 2015.1.31)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양국 위원들



▲파리에서의 홍보활동(2016.11.15)

등재 확정 이후 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심포지엄'(2017.11.3)을 비롯하여 '등재 기념행사'(부산문화재단, 2017.11.25), '조선통신사의 모임 IN 쓰시마'(쓰시마시, 2018.2.24) '조선통신사 한일교류 심포지엄'(국립해양박물관, 2018.10.27)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양국에서 펼쳐졌다. 더불어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기념도록과 백서의 제작도 이루어졌다. 양국의 두 민간단체는 각각 자국이 소장한 등재자료를 중심으로 기념도록을 만든 후 합본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에서 먼저 기념도록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한국판)』과 백서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006일의 기록』(2018.10.25)을 발간하였다.

이처럼 등재 이후의 2년도 그야말로 숨 가쁘게 흘러가 버렸다. 하지만 이제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우리가 신청서에 기록한 향후 계획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냉철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신청서에는 기존의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조선통신사 기록유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허브로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을 펼쳤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 기록유산관'으로의 확대 개편이나 자료가 집적된 허브의 기능,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룬 게 없다. 하다못해 '조선통신사 역사관'의 홈페이지에조차 기록유산에 등재된 양국의 자료 모두를 살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다. 그에 비해 일본은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홈페이지에 비록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국한되긴 했지만 양국의 등재자료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제는 등재라는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 걸치레 행사보다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양국의 두 민간단체들도 다시 한번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운영협의회'(가칭)의 설치를 통해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선양할 구체적인 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집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이도게大道芸 월드컵 in 시즈오카静岡

1992년부터 시작된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DWCS)는 “도시가 극장이다”라는 컨셉으로 매년 11월 초, 나흘 동안 시즈오카시에서 개최되는 페스티벌이다.

DWCS는 해를 거듭하는 동안 공연의 질은 물론, 규모면에서도 크게 성장하여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아시아 최고의 거리 페스티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국내외의 수준 높은 아티스트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면,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며 평범한 거리는 창조적인 예술의 도시로 변모한다.

월드컵 부문

참가자들의 경쟁을 통해 가장 뛰어난 공연을 펼친 팀을 우승자로 선발한다. 챔피언이 선정되며, 은상과 동상 및 개최 연도에 따른 실행위원회 특별상이 수여된다. 25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어느 팀이 가장 훌륭한 거리 공연을 보여줬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심사위원단은 공연이 끝난 후, 만약 자신에게 1000엔이 있다면 각 팀의 모자에 얼마를 팁으로 넣을지 결정하는 ‘나게센撒銭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시즈오카만의 독특한 방식이며, 챔피언으로 선정되면 다음 해 페스티벌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청된다.

온 부문

거리를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는 35~40팀의 공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된다.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정 장소에서 다양한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진행된다.

뉴커머스 부문

2019년에 새롭게 선보이는 부문으로 국내 아티스트에게만 적용된다. 시즈오카 거리로 밀려 들어오는 공연계의 커다란 파도가 어떤 새로운 변화와 트렌드를 가져오게 될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프린지 부문

라이브 페인팅, 카바레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시민들이 대안 예술 및 공연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샘솟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한다.

‘다이도게 월드컵 in시즈오카’를 무대로 한 부산 - 시즈오카 교류 부산 - 시즈오카에서 세계로



나카지마 카즈히코 中島一彦
시즈오카지 관광문화교류국
거리극장 추진과 추진감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는 매년 150만 명 이상 관광객을 모으는 아시아 최대급의 거리 축제입니다. 올해 ‘다이도게 월드컵’과 ‘부산 조선통신사 축제’ 사이에 본격적인 문화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류는 ‘신 조선통신사’와 같은 것으로, 두 도시의 우호관계뿐 아니라 문화 예술 영역에서는 세계적인 존재감을 높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류의 장이 더욱 확대되어 세계로의 창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올해 11월에 개최된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에 부산시에서 파견된 3팀의 거리 예술가가 참여하여 세계에서 모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관객들의 큰 환호를 얻었습니다.

부산시와 시즈오카시의 문화 교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등재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류를 더 넓히기 위한 장으로서 선택된 것이 거리 공연 예술 축제입니다. 두 도시의 지금까지도 부산의 조선통신사 축제에 거리 예술가를 파견하는 등 교류를 해왔지만, 올해 ‘다이도게 월드컵’을 무대로 한 국제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새로이 ‘축제 교류 부문’을 설립하여 부산 아티스트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한 아티스트와 ‘다이도게 월드컵’ 모두 아주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리 공연 예술 축제를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가 무엇을 낳았는지, 이 교류가 낳은 미래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시즈오카시 소개

시즈오카시는 인구 약 70만 명의 도시로 전국에 20개 있는 정부 지정 도시(대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1시간, 후지산이 아름답게 보이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와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조선통신사 재개의 주인공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랑한 마을이라는 점입니다. 이에야스는 유년기·장년기·그리고 쇼군을 은퇴한 후의 노년까지 3번을 스푸(현 시즈오카 시내)에서 보냈습니다. 장년기와 노년에는 스푸를 자신의 거점을 삼고 스푸성과 스푸 성하 마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야스는 정치·외교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통신사와 일본인 사이에서 이뤄진 문화교류에서도 스푸 성하 마을과 세이켄지는 대표적인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교류의 장이 된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는 이에야스가 머물렀던 성터인 ‘스푸성 공원’과 그가 세운 스푸 성하 마을(현 시즈오카 시내)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류의 시작 ‘신·조선통신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란

시즈오카시에서 매년 11월초에 열리는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는 1992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8회째를 맞았습니다.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는 연중 맑은 날이 많고 온난한 기후인 점과 걸으며 즐기는 것이 가능한 콤팩트한 시내를 가진 시즈오카시의 특징을 살려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4일간의 대회 기간 중 150만 명 넘게 모이는 아시아 최대 거리 공연 예술 축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세계 17개국에서 86팀 168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습니다. 대회는 시내에 흩어져 있는 약 40개의 실외 공연 포인트와 씨어터 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내의 공연 포인트에서는 누구라도 무료로 세계 탑 클래스의 공연 예술 연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최대의 특징은 대회가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해 기획·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연간 약 120명의 스태프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회 기간 중에는 약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축제라고도 볼됩니다.

거리 공연 예술 축제의 가능성

‘다이도게 월드컵’은 처음부터 ‘도시는 극장이다.’라는 컨셉으로 열려왔습니다. 현재, 시즈오카시는 이 컨셉을 마을꾸미기 전체 컨셉으로 삼아 ‘ON STAGE SHIZUOKA’라는 태그라인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어디든지 무대이다’, ‘도시에서는 누구라도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시민을 향한 메시지도 시즈오카시가 축제 도시를 목표로 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거리 공연 예술 축제가 낳은 가치와 가능성은 어떠한 것일까요?

거리에서 진행되는 가치

축제에서는 일상의 공간이 비일상의 공간, 극의 공간으로 변모하여 스테이지와 관객석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가치를 재확인하여 미래 가능성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극장에 간다는 것은 목적을 가진 행위이며 여유 있는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우연의 산물로 이뤄집니다. 거리가 낳은 다양한 만남이 새로운 체험과 감동을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다양한 세계 실현에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예술의 사회적 가치

공연 예술의 특징은 쌍방향성입니다. 무대 위의 연기자 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관객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시즈오카시에서 다이도게 월드컵을 28년간 지속해 오면서 관객인 시민의 성격은 크게 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소극적으로 반응하던 시민들이 지금은 박수, 미소, 팀(나게센)으로 아티스트에게 자신이 받은 감동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닌버벌(non-verbal) 공연은 나라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었습니다. 다양한 표현을 받아들여, 관객 스스로 연극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관객을 성장시켰습니다. 이러한 체험은 관용성을 중요시하는 세계 실현에 공헌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사회적 가치

축제와 페스티벌이 왕성한 지역은 지역에 대한 사랑이 깊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된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지역 재생과 활성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지역이 추구하는 힘, 지속가능성과 리질리언스(resilience, 회복력, 복원력)의 원점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하게 느낀 것은 2011년 5월 동북 태평양해안의 작은 마을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자원봉사자로서 방문한 마을은 해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황폐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때 지역 카구라(지역 신에서 제사를 지낼 때 연주하는 악무)가 열렸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2개월, 등 뒤에는 ‘힘내자!’라고 쓴 단체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이 카구라를 추고 있었습니다. 축제와 예능은 마음의 회복력이며 도시 재생의 힘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축제와 페스티벌에는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재생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계로의 창

이렇듯 거리 공연 예술 축제에는 사람들의 마을을 연결해 사회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바탕으로 부산시와 시즈오카시의 교류가 더욱 깊어진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세계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공통의 목표인 SDGs이념은 회복력, 다양성, 관용성입니다. 축제는 마치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도시가 교류를 통해 이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하여 축제를 통해 세계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극을 받아 가며, 이 교류가 넓고 깊어지기를 마음 속 깊이 바랍니다. 원고의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배려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박종원(불의정령)



▲ 오장욱, 김인기(저글맨&DG맨)



▲ 이영주(마술에 BAR진 남자)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 - 박종원(불의정령)



우선 내용을 쓰기 전에 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5월에 조선통신사 축제로 인해 인연을 맺게 되고 10월에 열린 다이도게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다이도게 월드컵 한·일 문화교류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술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무대인데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와서 대단히 기뻐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였고 무엇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에 너버벌(말을 하지 않고 하는 퍼포먼스) 공연을 선택하였다. 너버벌 공연을 선택하고 걱정도 있었다. 그 이유는 내 공연의 특성상 동작이 크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면 숨이 차고 체력 상 평장히 벅

차다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일본으로 출국하였다. 일본에 도착하여 3일은 페스티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공연장소를 확인하였고 4일째 되던 날은 내 자신을 알리고 공연을 알릴 수 있는 1분 프리뷰 쇼가 진행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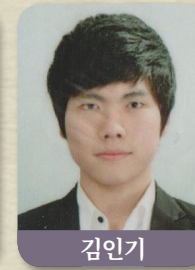
나는 파이어 공연자라 실내에서 불사용이 금지되어 LED공연으로 대체하였다. 프리뷰 쇼를 준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특별하게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2019 DAIDOGEI WORLD CUP IM SHIZUOKA> 라는 로고를 LED에 넣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드디어 내가 준비한 공연을 많은 일본사람들에게 선보일 시간이 찾아왔다.

공연시작 전 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딱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걱정을 무릅 쓰고 공연에 임했고 공연이 끝나자 머릿속에 있던 걱정들은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공연 내내 관객들이 반응도 많이 해주시고 공연이 끝난 뒤 많이 응원도 해주셔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남은 공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공연에 임했고 아무런 사고 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 - 오장욱, 김인기(저글맨&DG맨)



오장욱



김인기

한국과 일본의 서커스 수준(기술)은 꽤 많은 차이가 난다. 일본은 저글링, 아크로바틱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동호회, 아카데미 등이 발달되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이하 다이도게) 역시 우리나라 부산 공연팀이 해외의 거리공연, 서커스를 보고 배우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처음 다이도게를 본 것은 꽤 오래전 일이지만 실제로 함께 공연하고 느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같은 무대에서 같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서로의 공연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반응차이를 눈으로 본 것이 이번 다이도게 월드컵에 참여하며 첫 번째로 공부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라 간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들로 이어졌기에 우리는 공연 회차가 늘어갈수록 공연을 수정하고 현지 공연자들을 보며 배워 나갔다. 이는 일본의 공연자들이 우리나라에 와도 같을 것이다. 그만큼 공연이라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다이도게를 통해 절실히 느꼈다.

또한, 다이도게는 일본 공연자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연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에 세계 각국의 공연 스타일을 볼 수 있었고,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것은 다이도게의 시스템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 부분을 칭찬하고 싶다. 공연자에 대한 좋은 대우와 그들만의 특별한 환영식, 공연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다이도게에서 공연하는 것에 뿌듯함을 느낄 정도의 관객매너 등등이 그들이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다이도게 시민들이며 그들이 축제를 위해 모음을 한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 끝으로 이번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과 공연을 봐 주신 관객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이도게 월드컵 인 시즈오카 - 이영주(마술에 BAR진 남자)



이영주

다이도게 월드컵에서 공연한다고 했을 때에는, 설렘과 걱정이 앞서 있었다. 1년을 준비하는 동안 걱정도 많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공연자로서 평생 다이도게 월드컵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더욱 더 열심히 준비를 했다. 만약 혼자였다면, 이 자리까지도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옆에서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준 두 분이 있는데 김현수 교수님과 오장욱 형님이다.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부산 국제매직페스티벌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조금의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다이도게 월드컵이 있던 날, 첫 무대부터 아직 내가 작구나 하는 마음이 너무도 많이 들었다. 역시 세계적인 무대는 큰 것 같았다. 다양한 쇼와 영상에서만 보던 공연자들을 실제로 보는 순간, 첫 날에 멘탈이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첫 날부터 멘탈이 나가 있는 나에게 부산문화재단의 김효정선생님, 서한규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힘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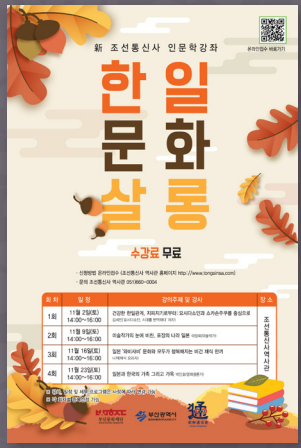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었다. 다이도게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 아쉬움도 많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금의 쇼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교류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저글링, 아크로바틱 등 교육적인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한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NEWS



전약아, 최근 조선통신사 역사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예 정사님, 최근 강사들을 초대하여 시민들을 위한 한일 문화 교류 인문학 강좌 <한일문화살롱>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단하구나. <한일문화살롱>은 매년 봄, 가을 열린다고 하니 내년 봄 강좌도 기대가 되는구나.

예. 또한 역사관에서는 가족, 친구, 연인을 위한 영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 겨울에 열리는 그 영화제 말이로구나. 나도 영화를 한 편 보러가야겠구나. 아, 또 얼마 전에는 조선통신사 연고지 캠프를 다녀왔는지?

예 정사님, 연고지 캠프에 대해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선통신사 국내 연고지 캠프



영천 조양각



영천 환벽정



경주 봉황대

경북 영천, 경주

영천 조양각

전별연¹⁾ 과 마상재²⁾ 가 펼쳐진 장소

조양각에서 경상도 관찰사는 일본으로 떠나는 사행원들을 위한 전별연을 열었으며, 조양각에서 마주 보이는 남천 강변에서는 마상재가 열리기도 하였다.

영천 환벽정

조선통신사가 사행길에 머무르며 한시를 적고 휴식을 취했던 장소

경주 봉황대

사행이 경주에 머물거나 울산을 향해 떠날 때 전별연을 베풀었던 장소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우리나라 전통선박을 연구 복원하는 문화재청 책임기관으로 조선통신사선 재현선을 만든 기관

일정 중 조선통신사선 승선체험 프로그램, 연구소 견학, 조선통신사선 학술복원 연구 강의를 진행하였다.

1)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통신사를 위해 국가에서 베푸는 공식 환송 잔치
2) 말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1636년 조선통신사 때부터 일본에 파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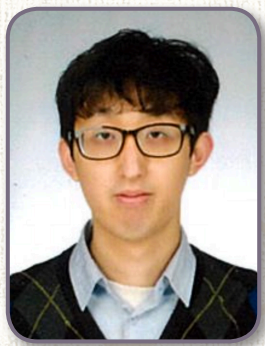
김동건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차 조선통신사 국내 연고지 캠프를 다녀오며

한일 양국에는 비탄의 역사가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 굵아 보이기도 한다. 이즈음 ‘조선통신사’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향점으로서의 화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일본의 통신사 유적지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며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왔다. 그렇게 생각했을 터인데, 한국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그런 나에게 이번 캠프는 특별한 것이었다.

우리는 통신사의 하행 노선인 경상좌도 영천과 경주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소박한 크기와 달리 깊은 학문을 담은 환벽정, 외교관의 귀감 포은 선생을 모신 임고서원, 한류의 기원 마상재를 품은 조양각 등이 그것이다. 각 문화재단이 문화재를 보호, 홍보하는 방식도 인상 깊었다. 국내 연고지는 일본이 주 활동 무대인 ‘조선통신사’에 있어 어찌 보면 약소한 부분이다. 그러나 ‘조선통신사’ 역시 조명되지 않았던 역사의 한 부분이지 않았던가.

경위지사傾危之士 사사키 의원의 발언 등을 볼 때 한일이 가야할 길은 멀어 보인다. 그럼에도 ‘조선통신사’는 양국에 별들던 때가 있었음을 말하며 음지에 누인 문화의 발굴자로 기억되어 야할 역사임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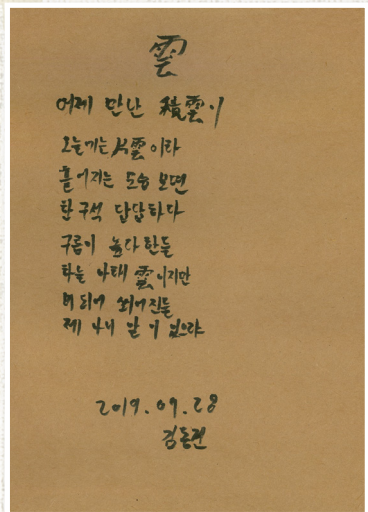
김권주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2차 조선통신사 국내 연고지 캠프를 다녀오며

작지만 화려했던 조선통신사선의 위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 벌써 한 달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앞서 갔다 온 1차 캠프와는 달리, 2차 캠프는 역사적 연고지 탐방보다는 조선통신사선 승선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처음엔 살짝 아쉬움이 들었다. 하지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수년간의 시간을 들여 복원한 조선통신사선을 직접 타고 또 이에 대한 강연을 들으면서, 배를 복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역사적 고증을 거쳤는지를 직접 느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구소에 소속된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신안선’이라는 매물선과 그 곳에 있던 수많은 유물들을 직접 보면서 역사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캠프를 기획하고 인솔했던 선생님 분들의 노고 덕분에 조선통신사선 승선체험이라는 흔치 않은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식사와 잊지 못할 추억까지 함께 얻을 수 있게 된 점이 이 캠프의 묘미가 아니었나 싶다. 그것도 무료로 말이다! 앞으로도 이런 캠프를 자주 열어 더 많은 사람들과 그 때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필담창화 筆談唱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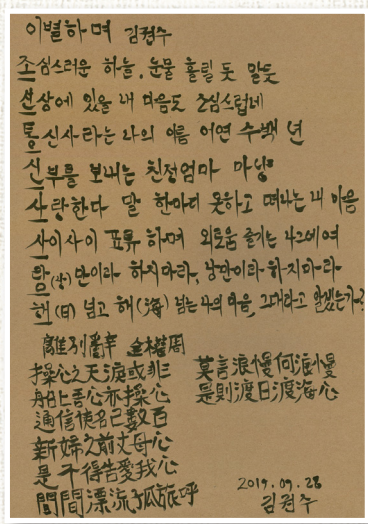
김동건작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제목: 雲

어제 만난 적운積雲이	구름이 높다한들
오늘에는 편운片雲이라	하늘 아래 운雲이지만
흩어지는 모습 보면	비 되어 씌어진들
한 구석 답답하다	제 아니 알 이있으랴

해설

과거 뽀구름인 적운과 같았던 관계 혹은 역사가 지금은 편운과 같은 조각난 구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낱 구름이니 비가 되어 내리고 사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그럼에도 그 사실이 없었던 것이 되는 일은 없다. 통신사 문인들은 용사用事한 작품을 많이 지었다. 그분들에 비할 순 없지만 좋아하는 양사언의 시조를 빌려 적어보았다.



김권주작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제목: 이별하며

조심스러운 하늘, 눈물 흘릴 듯 말 듯	操心之天淚或非
선상에 있을 내 마음도 조심스럽네	船上吾心亦操心
통신사라는 나의 이름 어연 수백 년	通信使名已數百
신부를 보내는 친정엄마 마냥	新婦之前丈母心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는 내 마음	是不得告愛我心
사이사이 표류하며 외로움을 즐기는 나그네여	間間漂流孤旅呼
랑(浪)만이라 하지마라, 낭만이라 하지마라	莫言浪漫何浪漫
해(海) 넘고 해(海) 넘는 나의 마음, 그대라고 알겠는가?	是則渡日渡海心

해설

부산에서 조선통신사 배를 타기 직전, 경주에서 사절단으로 파견되었을 사람이 느꼈을 두려움과 애달픔을 그려낸 시이다. 사절단으로서 느꼈을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날 뿐만 아니라 이합체시(Acrostic, 離合體詩) 구성을 통해 작가의 재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제목: 대풍 문화사 大風文化使

김태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전은서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학과)
김보건 (부경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홍가연 (부경대학교 해양바이오신소재학과)
이재훈 (동명대학교 기계공학과)	

해설

임진왜란이라는 모진 바람이 지나가고 조선통신사가 문화 교류를 위해 조선통신사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다.



2차 연고지 캠프(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조 작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찾아서 세이켄지清見寺 소장 기록물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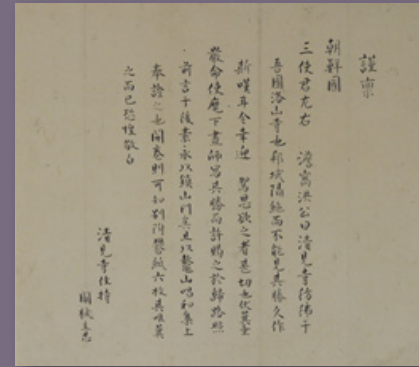


박화진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2017년 10월 31일, 한일양국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총 111건 333점(한국 63건 124점, 일본 48건 209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중에서 한일 양국에서 단독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즈오카현의 세이켄지清見寺 1건 48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양국 총 333점의 약 15%를 차지하며, 일본의 등재기록물 48건 209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세이켄지가 조선후기 조선통신사와 일본 문화교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세이켄지에 소장되어 있는 유네스코 등재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소개하고, 그 속에 나타난 조선통신사와 일본의 교류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세이켄지는 배후에 산이 에워싸고 앞으로는 바다가 펼쳐진 경승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로서, 일본 중세시대부터 에도시대에 이르기까지 쇼군들의 보호를 받아온 사찰이었다. 에도시대 초기에 조성된 세이켄지 정원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곳으로서 정원의 폭포, 소나무 및 파초芭蕉 등 초목이나 눈앞의 광활한 바다와 하늘의 아름다움 등도 조선통신사 시서의 소재로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세이켄지는 조선후기 조선통신사 영빈관(제1·3회) 및 휴식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통신사가 작성한 편액 및 많은 시문들이 세이켄지에 보관되고 있다. 세이켄지에는 약 69점의 조선통신사 관계자료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48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48점에 대해 소개하면 ‘독축관 박안기 5언율시(1643년, 제5차)’, ‘정사 조형 7언율시, 부사 유창 5언율시, 종사관 남용익 5언율시·7언율시(이상 1655년, 제6차)’, ‘정사 조태역 5언절구, 정사 조태역 7언율시, 부사 임수간 7언절구, 종사관 이방언 5언율시·7언절구, 서기 남성중 5언절구·7언절구(이상 1711년 제8차)’, ‘정사 홍계희 7언절구 2수, 정사홍계희·부사남태기·종사관조명채 7언절구, 부사 남태기 7언절구, 종사관 조명채 7언율시, 종사관 조명채 7언절구, 제술관 박경행 7언율시 2수, 서기 이봉환 7언율시 2수, 서기 이명계 7언율시 2수, 서기 유후 7언율시(이상 1748년, 10차)’, ‘정사 조엄 5언율시, 부사 이인배 5언율시, 종사관 김상익 5언율시·7언절구, 제술관 남옥 5언율시·7언절구, 서기 원중거 5언율시·7언절구·서장書狀, 서기 성대중 5언율시 2수·7언절구 3수, 서기 김인겸 5언율시 2수·7언절구, 군관 이해문 5언절구, 기선장 변박 5언율시, 반인 홍선보 5언율시·7언절구(이상 1763년, 제11차)’, ‘明和元年通信使書記書上(1764년)’, ‘槐翁筆 부사 경섭 7언 절구·槐翁筆 종사관 정해관 7언절구(1607년, 제1차)’, ‘清見寺第11世關板主忍書狀’, ‘清見寺第11世關板主忍7언절구(1764년)’ 등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두 작품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림 1>

*출처 : (사)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도록 시리즈III, 『세이켄지 소장조선통신사유물 도록』, p.114.

<그림 1>은 ‘세이켄지 제 11대 주지 간레이 슈닌 서장清見寺第11世關板主忍書狀’으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찍이 1748년(제 10차) 조선통신사행 정사 홍계희로부터 ‘세이켄지清見寺가 조선의 낙산사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던 간레이 슈닌이, 제11차 조선통신사(1763-1764년) 삼사에게 화공으로 하여금 낙산사 그림을 그려 하사하여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편지이다. 이에 화공 김유성金有聲이 6폭의 그림을 그려 세이켄지에 증정한 것이 바로 <그림 2>이다. 원래는 모두 6폭이었으나 현재는 4폭만이 병풍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우측에서부터 「금강산도」, 「화조도」, 「매조도」, 「낙산사도」이다. 「금강산도」에는 ‘금강산 일만 이천 봉우리를 다 그릴 수도 없고 또한 다 쓸 수도 없다. 갑신 봄 조선국 서암 그림. [인] 김유성’, 「낙산사도」에도 ‘낙산사, 갑신 봄 조선 서암 그림 [인] 김유성’ 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선국의 세 사신 어르신께 삼가 아뢰입니다.

담와 홍공이 말하기를 “세이켄지清見寺는 우리나라 낙산사와 방불하다”고 하였습니다. 땅이 멀리 격리되어 있어서 그 멋진 경치를 볼 수 없어 오래도록 이를 한탄하였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통신사행을 맞이하게되자 이 염원이 더욱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휘하의 화원畫員에게 엄명을 내리시어 그 경치를 그려서 귀로에 하사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림을 통해서 앞서의 하신 말씀과 비취어 보아 영원히 절의 진귀한 보배로 삼겠습니다. 또한 『오산창화집 鰲山唱和集』을 받들어 올리오니, 그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이 시집을 보신다면 납득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반지簪紙 6매를 부칩니다. 부디 오로지 염원할 뿐이옵니다. 공손히 황공하여 사뢰나이다. 청견사 주지 관려주인」



<그림 2> ‘금강산도, 낙산사도, 매조도’(김유성 그림) - 출처 : 전게서, p. 140-141



朝鮮通信使ギャラリー

朝鮮通信使、静岡県のユネスコ「世界の記憶」を訪ねる
清見寺の所蔵している記録物を中心として

朝鮮通信使、静岡県のユネスコ 「世界の記憶」を訪ね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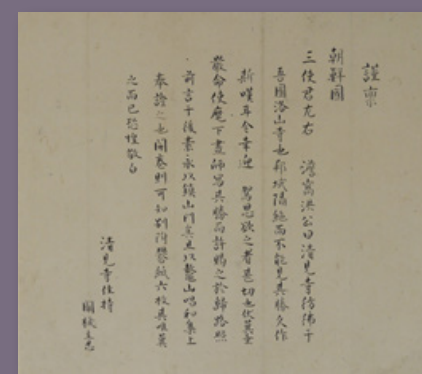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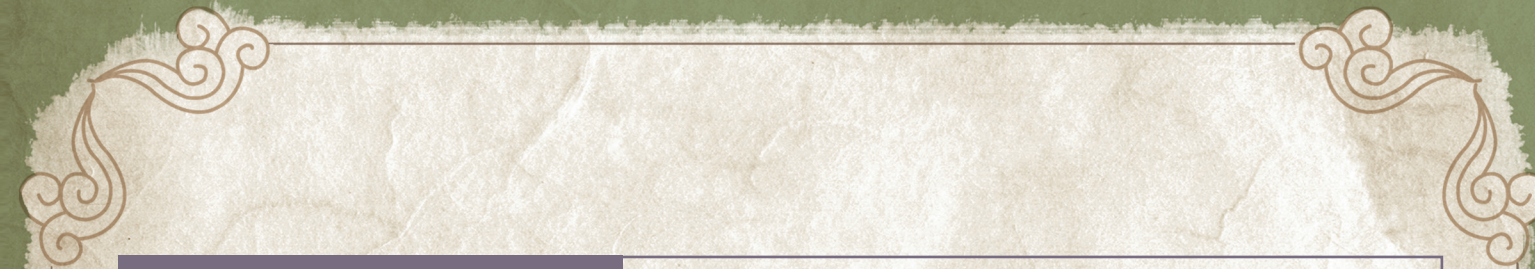
清見寺の所蔵している 記録物を中心として



朴花珍 釜慶大学 史学科 教授

2017年10月31日、韓日両国の民間団体が共同で力を合わせて、朝鮮通信使関連の記録物総計111件・333点(韓国63件・124点、日本48件209点)をユネスコ「世界の記憶」に登録する快挙を成し遂げた。今回ユネスコに登録された両国の記録物の中でも、単独で一番大きい割合を占めているのが静岡県の清見寺の1件・48点だと言える。両国の333点から見ても15%の割合で、日本の記録物でも一番多くの割合を占めていることから、清見寺が朝鮮王朝の末期の朝鮮通信使と日本の文化交流ですごく大事な役割をしていたのが分かる。それで、清見寺が所蔵しているユネスコに登録されている朝鮮通信使の記録物を紹介し、その中で表れている朝鮮通信使と日本の交流の形を調べてみよう。清見寺は背後には山を控え、前には海が広がっている絶景の地であり、交通の要衝にあったため、日本の中世時代から江戸時代まで、將軍達に保護されたお寺だ。江戸時代初期に建てられた清見寺庭園は將軍徳川家康公に愛された場所で、庭園の滝、松及び芭蕉などの草木や、目の前に広がる広々とした海と空の美しさは朝鮮通信使の詩・書のテーマとしてよく表現された。

清見寺は朝鮮末期の朝鮮通信使の迎賓館(第1・3回)及び休息の場所でも使われたため、通信使が作成した扁額や多くの詩書が、清見寺に保管されている。清見寺には約69点の朝鮮通信使の資料が残っており、その中で48点がユネスコ「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た。48点の紹介すると、「読祝官朴安期(螺山)五言律詩」(1643年、第5回)、「正使趙珩(翠屏)七言律詩」、「副使俞場(秋潭)五言律詩」、「従事官南龍翼(壺谷)五言律詩・七言律詩」(1655年、第6回)、「正使趙泰億(平泉)五言絶句」、「正使趙泰億(平泉)七言律詩」、「副使任守幹(靖庵)七言絶句」、「従事官李邦彦(南岡)五言律詩・七言絶句」、「書記南聖重(仲容・泛叟)五言絶句・七言絶句」(1711年、第8回)、「正使洪啓禧(澹窩)七言絶句」二句、「正使洪啓禧七言絶句・副使南泰耆七言絶句・従事官曹命采七言絶句」、「副使南泰耆(竹裏)七言絶句」、「従事官曹命采(蘭谷)七言律詩」、「従事官曹命采(蘭谷)七言絶句」、「製述官朴敬行(矩軒)七言律詩」2点、「書記李鳳煥(濟庵)七言律詩」2点、「書記李命啓(海阜)七言律詩」2点、「書記柳逅(醉雪・柳子相)七言律詩」(1748年、第10回)、「正使趙暉五言律詩」、「副使李仁培(小行人)五言律詩」、「従事官金相翊(弦庵)五言律詩・七言絶句」、「製述官南玉(秋月)五言律詩・七言絶句」、「書記元重拳(玄川・子才)五言律詩・七言絶句・書状」、「書記成大中(龍淵)七言絶句」2点、「書記成大中(龍淵)七言絶句」3点、「書記金仁謙(退石・士安)五言律詩」2点、「書記金仁謙(退石・士安)七言絶句」、「名武軍官李海文(兼泉・徳水)五言律詩」、「騎船将卞璞(述齋)五言律詩」、「伴人洪善輔(黙齋)五言律詩・七言絶句」(1763年、第11回)、「明和元年通信使書記書上」(1764年)、「槐翁筆 副使慶暹七言絶句・槐翁筆従事官丁好寛七言絶句」(1607年、第1回)、「清見寺第11世關板主忍書状」、「清見寺第11世關板主忍七言絶句」(1764年)などである。この中で代表的な二作品を紹介する。この中で代表的な二作品を紹介する。



＜絵1＞清見寺第11世關板主忍書状

*出処：(社)朝鮮通信使文化事業会図録シリーズⅢ、
『清見寺所蔵朝鮮通信使遺物図録』P.114

＜絵1＞は「清見寺第11世關板主忍書状」で、内容は以下の通りである。かつて1748年(第10回)朝鮮通信使の正使洪啓禧の「清見寺が朝鮮の洛山寺と似ている」と聞いた關板主忍が、第11回の朝鮮通信使(1763-1764年)の三使に絵師から洛山寺を描いていただけるようお願いした手紙だ。それで、絵師の金有聲が6幅を描き、贈ったものが＜絵2＞だ。当初は6幅だったが、現在、4幅のみ残っている。右川から「金剛山図」、「花鳥図」、「梅鶏図」、「洛山寺図」となる。「金剛山図」には『金剛山の一万に選峯すべては描けないし、全部は書けない。甲信春怨庵 絵。印金有聲』、「洛山寺図」にも『洛山寺甲信春朝鮮怨庵 絵。印金有聲』と記録されている。

「朝鮮国三使の方々に謹んで申し上げます。

かつて延享五年の通信使正使であられた澹窩洪公が仰る事には、清見寺は朝鮮国洛山寺を彷彿させるものがあるとの事でありましたが、私どもからすると、隔絶した所ゆえにそのすばらしい景観を見ることかなわず、久しく嘆いてきたところでありました。幸いにもこのたび、御使節をお迎えする事になり、この願はいよいよ甚だ切なるものとなりました。伏して御願ひ申し上げますが、御使節から麾下の絵師に御命じくだされまして、そのすばらしい真景を御描きになって、江戸からの御帰途の節に、この絵を賜りますように御許可くだされませ。先の御言葉を絵画に照応させて、末永く清見寺を鎮護するものとなりましょう。かつまた、鰲山唱和集を奉呈し、その證と致します。この詩集を御披閲くださればご納得いただけるものと存じます。別に磬砂引きの画料紙を六枚添えました。ひたすらに願ひするのみであります。恐惶敬白。清見寺住持關板主忍



＜絵2＞「金剛山図」、「梅鶏図」、「洛山寺図」(金有聲 作)

出処：(社)朝鮮通信使文化事業会図録シリーズⅢ、『清見寺所蔵朝鮮通信使遺物図録』p.140-141



金東建

釜山大学国語国文学科

1次朝鮮通信使の国内縁故地キャンプを行ってきて

韓日両国には悲嘆の歴史があった。今になっては腐っているような気がする。これを見ると「朝鮮通信使」の歴史は単純に過去の事実ではなく、志向での和合を話すことである。私は日本の通信使の遺跡地に関心を持って訪問し私なりに考えをまとめた。そのように考えたけれど、韓国での行跡には何一つ知らなかったことに気づいた。恥ずかしいことだ。そんな私に今回のキャンプは特別なものだった。

私たちは通信使の下りの道である慶尙道の永川と慶州で意味深い時間を過ごした。素朴な大きさと違い、深い学問がこもった環碧亭、外交官のかがみである圃隱先生が眠っている臨臯書院、韓流の起源の馬上才がある朝陽閣などがそれだ。各文化財団が文化財を保護、広告する仕方も印象深かった。国内縁故地キャンプは日本が主な活動舞台となる「朝鮮通信使」においては些細な所はある。しかしながら、「朝鮮通信使」も照明されなかった歴史の一部であった。傾危之士、佐々木議員の発言などから、韓日が進む道はまだ遠い。でも、「朝鮮通信使」は両国が晴れた時もあったと、陰にある文化の発掘者であったことは記憶すべき歴史的なことに間違いないと考える。



金權周

釜山大学漢文学科

2次朝鮮通信使の国内縁故地キャンプを行ってきて

小さいけれど華やかだった朝鮮通信使船の威厳が未だに薄れないのに、もう1ヶ月ほどの時間が経った。先に行ってきた1次キャンプとは違い、2次キャンプは歴史的な縁故地探訪よりは朝鮮通信使船の乗船体験が主であり、歴史に関心が多い私には少し名残があった。しかし、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で数年間時間をかけて復元した朝鮮通信使船に直接乗って、またこれに関する講演を聞きながら、船を復元するためにどれだけ多くの歴史的な考証を重ねたか直接感じる事ができた。そして、研究所に属する海陽遺物展示館で「新安船」という埋没船とそこに眠っていた数多くの遺物を見ながら、歴史に関しても新たに知ることができた。

何よりもキャンプを企画し、引率した先生方の苦勞のお陰で、朝鮮通信使船乗船体験という珍しい機械を得たし、美味しい食事や忘れることのない思い出を得ることができたのがこのキャンプの醍醐味だった。それもただで! これからもこのようなキャンプをもっと開いて多くの人々がこのキャンプの楽しさを感じることを願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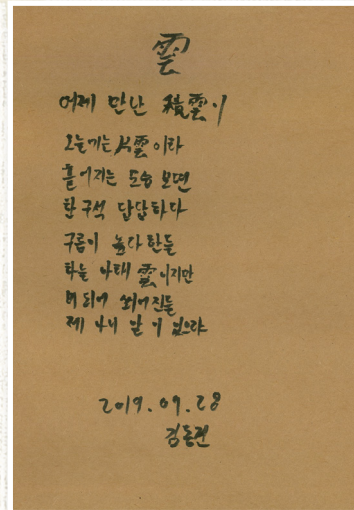
筆談唱和

タイトル:雲

昨日出会った積雲が	雲が高いとはいえ
今日には片雲なり	天の下での雲なのが
散かす姿見ると	船なり照らして
焦げた如く重苦しい	誰一人知るのか

解説

過去、強い雲だった積雲のような関係または歴史が、今になっては語雲のような千切れ雲に見える。ただの雲なので、雨になって消え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ながら、その事実がなかったことにはできない。通信使の文人は昔の優れた文句から引用して作品を書いた。その方々には比べないが、私が好きな楊士彦(ヤン・サオン)先生の時調を借りて書いてみた。



金東建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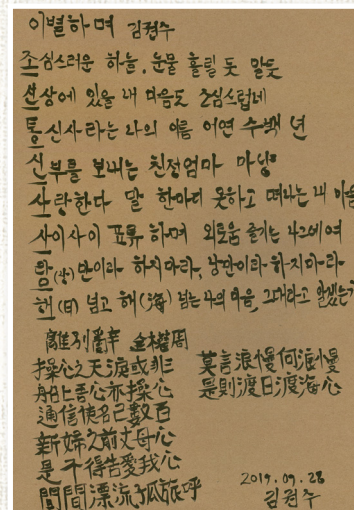
釜山大学 国語国文学科

タイトル:別れながら

慎む空、涙うるうる	操心之天淚或非
船上にいる私心も慎ましい	船上吾心亦操心
通信使の我が名はもう数百年	通信使名已數百
新婦を送るお母さん如き	新婦之前丈母心
愛する言葉もできず別れる我が心	是不得告愛我心
漂いながらも寂しさも楽しむ旅人よ	間間漂流孤旅呼
浪漫と言わないで、浪漫と言わないで	莫言浪漫何浪漫
日を超え、海を超え、我が心を貴方は知るだろうか	是則渡日渡海心

解説

釜山で朝鮮通信使が船に乗る前に使節団として派遣される人が感じる恐怖と切なさを描いた詩である。使節団として感じた複雑な心境がよく表現できて、アクロバティックな構成を通し、作家のウィットも感じられる。



金權周作

釜山大学 漢文学科

タイトル:大風文化史

金泰均(キム・テギョン、東亜大学 経済学科)	全殷署(ジョン・ウンソ、釜山外国語大学 外交学科)
金普建(キム・ポコン、釜慶大学 地球環境学科)	弘佳延
李在訓(イ・ジェフン、東明大学 機械工学科)	(ホン・カヨン、釜慶相額 海陽バイオ新素材学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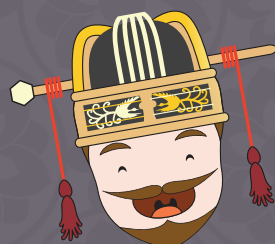
解説

壬辰倭亂(日本では文禄・慶長の役)の苦しい時期も過ぎ、朝鮮通信使が文化交流のため朝鮮通信使船に乗り、日本に向かっている。



2次縁故地キャンプ(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5組作

朝鮮通信使歴史館 NEWS



典樂、最近朝鮮通信使歴史館ではどんな事業をやっている？

はい、正使様。最近講師たちを招待して市民のための韓日文化交流人文学講座「韓日文化サロン」を進行致しました。



素晴らしい!「韓日文化サロン」は毎年春・秋に開かれるそうだし来春の講座も期待している。

はい。また歴史館では家族・友達・恋人のための映画祭が開かれております。



毎夏・冬のあの映画祭のことだな。映画を観に行かないと。あ、そういえば少し前には朝鮮通信使縁故地キャンプに行ってきたそうだな。

はい、縁故地キャンプについて詳しく報告致します。

朝鮮通信使

国内縁故地キャンプ



永川 朝陽閣



永川 環碧亭



慶州 鳳凰臺

慶北の永川と慶州

永川 朝陽閣

餞別宴¹⁾と馬上才²⁾が開かれた場所

朝陽閣で慶尙道の觀察使は日本に行く使行員達のための餞別宴を開き、朝陽閣から見える南川の川辺では馬上才が開かれた。

永川 環碧亭

朝鮮通信使が使行で泊りながら漢詩を書いたり休息をとった場所

慶州 鳳凰臺

使行が慶州で泊まったり蔚山(ウルサン)に向かう時、餞別宴を行った場所

木浦(モクポ)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木浦(モクポ)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国立海洋文化財研究所

韓国の伝統船舶を研究、復元する文化財庁の責任機関で朝鮮通信使船の再現船を造った機関

行程中朝鮮通信使船に乗船する体験プログラム、研究所の見学、朝鮮通信使船の学術復元の研究に関する講義が行われた。

1) 日本へ発つ朝鮮通信使のための国家からの公式晩餐
 2) 馬の上でパフォーマンスをする事。1636年朝鮮通信使から日本に派遣された。



▲朴鐘源(火の精霊)



▲吳長昱・金仁基(ジャグルマン & DGマン)



▲李英周(オー！パー)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 朴鐘源(火の精霊)



朴鐘源

まず、内容を書く前に、釜山文化財団の朝鮮通信使の関係者の方々に心より感謝する。5月に朝鮮通信使祭りで縁があり、10月に開かれた大道芸フェスティバル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何日か前、日本で開催し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た。アーティストなら誰でも夢見る舞台に立つ機会を与えていただけてすごく嬉しかった。それで、たくさん準備して、何よりも言葉が通じない国なので、ノンバーバル(話さないで演技する)パフォーマンスを選んだ。ノンバーバルパフォーマンスだったので、心配も多かった。それは、私のパフォーマンスの特徴は動作が大きくパワーfulなものが多いので喋らず演技すると、息苦しくなったり、体力的にも無理があったりするからだ。

しかし、全てを考えあわせて日本に向かった。日本に到着して3日後、フェスティバルのオリエンテーションとパフォーマンス場所を確認し、4日目は私自信を紹介してパフォーマンスもお知らせできる1分プレビューショーが行われました。私は火を使うパフォーマンスをするが、室内では火の使用が禁止されており、LEDを使ってパフォーマンスをした。プレビューショーを準備する際にも多くの人に特別な思い出を与えたくて、<2019 DAIDOGEI WORLD CUP IM SHIZUOKA>のロゴをLEDで表現した。

そして、5日目はようやく準備したパフォーマンスを日本の人々に見せることができた。パフォーマンスの前に、日本不買運動など日韓の関係が悪化している状況で心配が多かった。心配を抑えながら、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私が心配したことは頭から消え去った。思ったのと違い、パフォーマンスを観て多くの人々が喜び、応援してくれて、私の心配は要らないことだったと思った。それで、残りの期間も最善を尽くしてパフォーマンスをし、何事もなく韓国に帰ることができた。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 吳長昱・金仁基(ジャグルマン & DGマン)



吳長昱



金仁基

韓国と日本のサーカスの技術の差は大きい。日本の方がジャグル、アクロバティックなどに触れる機会が多いのがその理由だと思う。近いうちに韓国も同好会、アカデミーなどが増え続けて変わるだろう。今回の「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も釜山のパフォーマンスチームが海外の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サーカスを見て学べる良い機械だった。初めて大道芸を見たのは何年も前のことだったが実際に舞台上に立って感じたのは今回が初めてだった。同じ舞台上で観客に見せるパフォーマンスを通して、日本人と韓国人の反応の差が目に見えたのは今回の大道芸の1番大きく得たものだ。

国の情緒や文化の差は、思ってもいない反応に繋がったので、私たちはパフォーマンスを重ねながら、現地のアーティストを観て学び、パフォーマンス内容を少しずつ変えた。これは日本のアーティストが韓国に来てパフォーマンスをしても同じだと思う。パフォーマンスの中で観客との共感は大変だということを今回の大道芸を通してすごく感じた。

また、大道芸は日本のアーティストのみならず、世界中のアーティストが集まる所なので、世界のパフォーマンスに触れ、彼らと交流できる良い時間だった。これは大道芸のシステムのおかげで、ありがたく思う。アーティストに対する待遇が良く特別な歓迎会やアーティストが交流できるような場を作ることや大道芸でパフォーマンスできることが誇らしく思える程の観客のマナーは、大道芸が持っているシステムだと思います。実際、多くのスタッフは静岡の市民であり、このフェスティバルのために募金するということもびっくりでした。最後に、今回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に参加する機会をいただき、関係者の皆様とパフォーマンスを見てくれた観客の皆様へ感謝する。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 李英周(オー！パー)



李英周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でパフォーマンスをするという話を聞いた時には、ときめきや心配が先に立った。1年間の準備期間中、心配も多かったし、諦めたかった時もあった。しかし、アーティストとして生涯大道芸の舞台に立てることがあるだろうかと思い、心を固めて準備した。もし、一人だったら、この場に立つのも難しかったと思う。隣でたくさん励ましてアドバイスをくれた二人、キム・ヒョンス教授と吳長昱様に感謝の言葉を伝えたい。この舞台を準備する時、釜山国際マジックフェスティバルで最優秀作品賞をもらい、少し自信があった。そして、待ちに待っ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が始まった日、初舞台で私はまだまだだなとすごく感じました。やはり世界の舞台は大きかったです。初日、様々なショーと画像でしか見て

なかったアーティストの実際の舞台を見て、頭がぼうとした。ぼうとしている私に釜山文化財団のキム・ヒョウジョン先生やソ・ファンギョ先生は物凄く頼りになってくれた。

韓国と日本の文化的な違いについてもいろいろ説明してくれて、すごく役に立った。大道芸が終わり、約1カ月が過ぎたが、今考えたら、物足りないところも多く、もっと上達したい気持ちもあり、今のパフォーマンスをアップグレードしようと思う。願うのは、これからも様々なパフォーマンスができるように、今回のような交流が活発になってほしいのと、ジャグル・アクロバティックなどの教育にも力を入れてほしい。

静岡市の紹介

静岡市は、人口約70万の都市で、全国に20ある政令指定都市(大都市)のひとつです。東京から新幹線で1時間、富士山が美しく見える都市でもあります。釜山市との関係において特筆すべきは、朝鮮通信使再開の立役者・徳川家康公が愛したまち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家康公は、幼年期・壮年期・そして將軍を退いた後の晩年と3度の期間を駿府(現：静岡市の市街地)で過ごしています。壮年期と晩年には駿府を自らの拠点と定め、駿府城と駿府城下町を整備しました。家康公は政治・外交に大きな影響力を持っていたので、朝鮮通信使と日本人との間で行われた文化交流においても、駿府城下と清見寺は代表的な交流の場となりました。そして、現代の交流の場となっ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は、家康公の居城跡である「駿府城公園」と彼が築いた駿府城下町=現在の静岡市街地が会場になっています。これは、新たな交流の始まり「新・朝鮮通信使」と言え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とは

本市で、毎年11月の初めに開催される「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は、1992年に始まり、本年で28回目を迎えまし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は、年間を通じて晴れの日が多く、温暖な気候であること、歩いて楽しむことのできるコンパクトな市街地を持つという本市の特徴を活かして発展してきました。今では4日間の大会期間中の集客が150万人を超える、アジア最大級のストリート・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フェスティバルとなっています。今年の大会は、世界17ヵ国から、86組168人のアーティストに参加いただきました。大会は、市街地に散りばめた約40ヵ所の屋外演技ポイントとシアターショーで構成されています。市街地の演技ポイントでは、誰でも無料で世界トップクラスの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の演技を見ることが出来ます。もうひとつの、そして最大の特徴は、大会が全てボランティアにより企画・運営されていることです。年間を通じ約120人のスタッフが活動し、大会期間中には、延べ2,000人のボランティアが運営を支えています。この点において世界でも類を見ないフェスティバルであるといえます。

ストリート・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フェスティバルの可能性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は、当初から「まちは劇場」というコンセプトで開催されてきました。現在、本市はこのコンセプトをまちづくり全体のコンセプトに据え「ON STAGE SHIZUOKA」というタグラインを定め、様々な事業を展開しています。これは、「街の中どこでもがステージだ!」「まちでは、誰もが主役を演じ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市民に向けたメッセージであり、本市がフェスティバル・シティを目指すという宣言でもあります。



では、ストリート・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フェスティバルの生み出す価値や可能性とはどのようなものでしょう。

ストリートで行われることの価値

フェスティバルでは、日常の空間が、非日常の空間・劇空間に変わり、ステージや観客席が出現することを体験します。これは自分たちの住むまちの価値を再認識し、未来の可能性を感じる瞬間でもあります。劇場に出かけるということは、目的を持った行為であり、余裕のある人達のものと思われています。一方、ストリートで行われるパフォーマンスは偶然の出会いに支配されています。ストリートが生み出す多様な出会いが、新たな体験や体感を市民に提供します。この体験は、多様性のある世界の実現に貢献できるものであると考えます。

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の社会的価値

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の特徴は、双方向性にあります。舞台上の演技者だけでは成り立たず、観客がいることが必要不可欠です。本市で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を28年間続けてきたことで、観客である市民の性格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当初、恥ずかしがりやで反応をためらっていた市民が、今では、拍手、笑顔、投げ銭でアーティストに自分の感動を伝えることに喜びを感じています。特に、ノンバーバルなパフォーマンスは、国や文化の壁を乗り越えることに役立ちます。様々な表現を受け入れ、観客自身も演技者になることが観客を育てます。この体験は、寛容性を大切にする世界の実現に貢献できるものであると考えます。

フェスティバルの社会的価値

祭りやフェスティバルが盛んな地域ほど、地域への愛が深いと言われる。若者が地域に定着したり、都会から地域に戻ったりする理由になるとも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地域の再生や活性化にとってとても重要な要素です。また、地域に求められる力、持続可能性とレジリエンス(回復力、復元力)の原点であると考えます。私が、このことを強く感じたのは、2011年の5月、東北の太平洋岸の小さな村でのことでした。市民クラウンと共にボランティアとして訪れていた村には、津波がすべてを飲み込みってしまった荒涼たる風景が広がっていました。そこで、地域の神楽を披露する祭りが開催されていたのです。東日本大震災からたった2ヶ月、背中に「頑張りよう!」と書かれた揃いのTシャツを着た若者たちが神楽を踊っていたのです。祭り・芸能は心の中のレジリエンスであり、都市再生の力を人々に与えることを実感しました。祭りやフェスティバルにはコミュニティをつなぎ、再生する力があるのです。

世界への窓

このようにストリート・パフォーミングアーツ・フェスティバルには、人々の心をつなぎ、社会を良い方向に変えていく力があるのです。このフェスティバルをベースに釜山市と静岡市が交流を深めることで、私たちにどんな未来が開けるのでしょうか。世界が2030年までに達成すべき共通の目標とするSDGsの理念は、レジリエンス、多様性、寛容性です。フェスティバルはまさに、その実現のための手段といえます。両市が交流によってこのメッセージを世界に発信し、フェスティバルを通じて世界と直接つながっていくことが可能であると信じています。今後、より相互の理解を深め、刺激を受けながらこの交流が広がり、深まることを心より願っています。関係者の皆様のご配慮により、投稿の機会をいただい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ます。

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

1992年より始まっ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 in 静岡(DWCS)は、「まちは劇場」というコンセプトで、毎年11月の初旬に4日間静岡市で開催されるフェスティバルだ。DWCSは年を重ねるほど、パフォーマンスの質はもちろん、規模面でも大きく成長し、毎年150万人の観光客が訪れるアジア最大級のストリートフェスティバルとなった。国内外の高いレベルのアーティストが舞台の上に立つと、訪れたすべての人達は幸せそうな微笑みを浮かび、平凡だった街は創造的な芸術の町に変わる。

ワールドカップ部門

参加者の競争で最も立派なパフォーマンスを見せたチームが優勝者になる。チャンピオンが選ばれ、シルバー賞とブロンズ賞、年によっては実行委員会の特別賞が贈られる。25名の市民で構成された審査委員会はどんなチームが一番レベルの高い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を見せたか判断できるよう特別な教育を受ける。審査はパフォーマンスが終わった後、もし自分に1,000円があったら、各チームにいくらづつ投銭するかで決定する「投げ銭方式」で行われる。これは、静岡だけのユニークな方式で、チャンピオンに選ばれたら、翌年のフェスティバルにゲストアーティストとして招待される。

オン部門

街に豊かな彩りを与えてくれる35~40チームのパフォーマンスが昼夜にわたり続く。市内のあちこちを歩き回ると、街角の演技ポイントで国内外のアーティストのパフォーマンスを楽しむ。

ニューカマーズ部門

2019年、新しく開設した部門で国内アーティストのみに適用する。静岡の街に押し寄せてくるパフォーマンス界の大きなうねりで、どのような変化とトレンドが来るか、直接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フリンジ部門

ライブペイント、スポーツのショーなどの見どころがいっぱいある。市民が代案芸術及びパフォーマンスが作り出すユニークな趣を十分楽しめるように、絶やす事ないアイデアと創造力を持って新しいプラットフォームを提供する。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を 舞台とした釜山-静岡の交流 釜山-静岡から世界へ



中島一彦

静岡市まちは劇場推進課推進監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は、毎年150万人以上の観客を集めるアジア最大級のストリート・フェスティバルである。本年、「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と「釜山朝鮮通信使祭り」の間で本格的な文化交流が始まった。この交流は、まさに「新・朝鮮通信使」であり、両市の友好関係だけでなく、文化芸術領域における世界的なプレゼンスを高める可能性を秘めている。交流の輪がさらに拡大し、世界への窓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200文字)本年11月に開催され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に釜山市から派遣された3組の大道芸アーティストが参加し、世界中から集まったアーティストたちと共に、観客の大喝采を浴びました。

釜山市と静岡市の文化交流は、ユネスコの「世界の記憶」に「朝鮮通信使」が登録されたことをきっかけにスタートしました。この交流をさらに広げていくための場として選んだのが、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フェスティバルです。両市は、これまでも「釜山・朝鮮通信使祭り」に大道芸アーティストを派遣するなど交流を行ってきましたが、本年、「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を舞台とした国際交流を本格的に始めるため、新たに「フェスティバル交流部門」を設け、釜山のアーティストに出場いただきました。結果、参加アーティストにとっても「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にとっても非常に大きな成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ました。本稿では、ストリート・パフォーマンス・フェスティバルをベースとした文化交流が何を生み出すのか?この交流が生み出す未来について述べたいと思います。



誠信交隣

「朝鮮通信使記録物」の世界記憶遺産登録2周年、
回顧と課題



韓泰文

釜山大学 国語国文学科 教授

「朝鮮通信使記録物」の 世界記憶遺産登録2周年、 回顧と課題



2017年10月31日午前2時54分、携帯電話に釜山文化財団の事務局よりメールが送られて来た。朝鮮通信使記録物が世界記憶遺産として登録できたとのことでした。研究室で弟子達と夜明けしながら、最終校正を終え、釜山郵便局を通しユネスコ本部に送ってから、ちょうど1年7か月ぶりの朗報であった。その時、喜びよりも長いトンネルを抜けた安堵とともに共同登録のために走ってきた2年間の思い出が走馬灯のように思い出した。

両国がこじれている状況で、共同登録は夢のような言葉だと言う人も、先立って日本に良いことをやってくれると当て付けを言う人もいた。私も歴史教科書の問題があった時、日韓歴史共同委員会の「朝鮮通信使」の分課の構成員として参加しましたが、両国の委員達の合意はもちろん共同報告書も提出できず、それぞれ報告書を出した苦しい思い出もあ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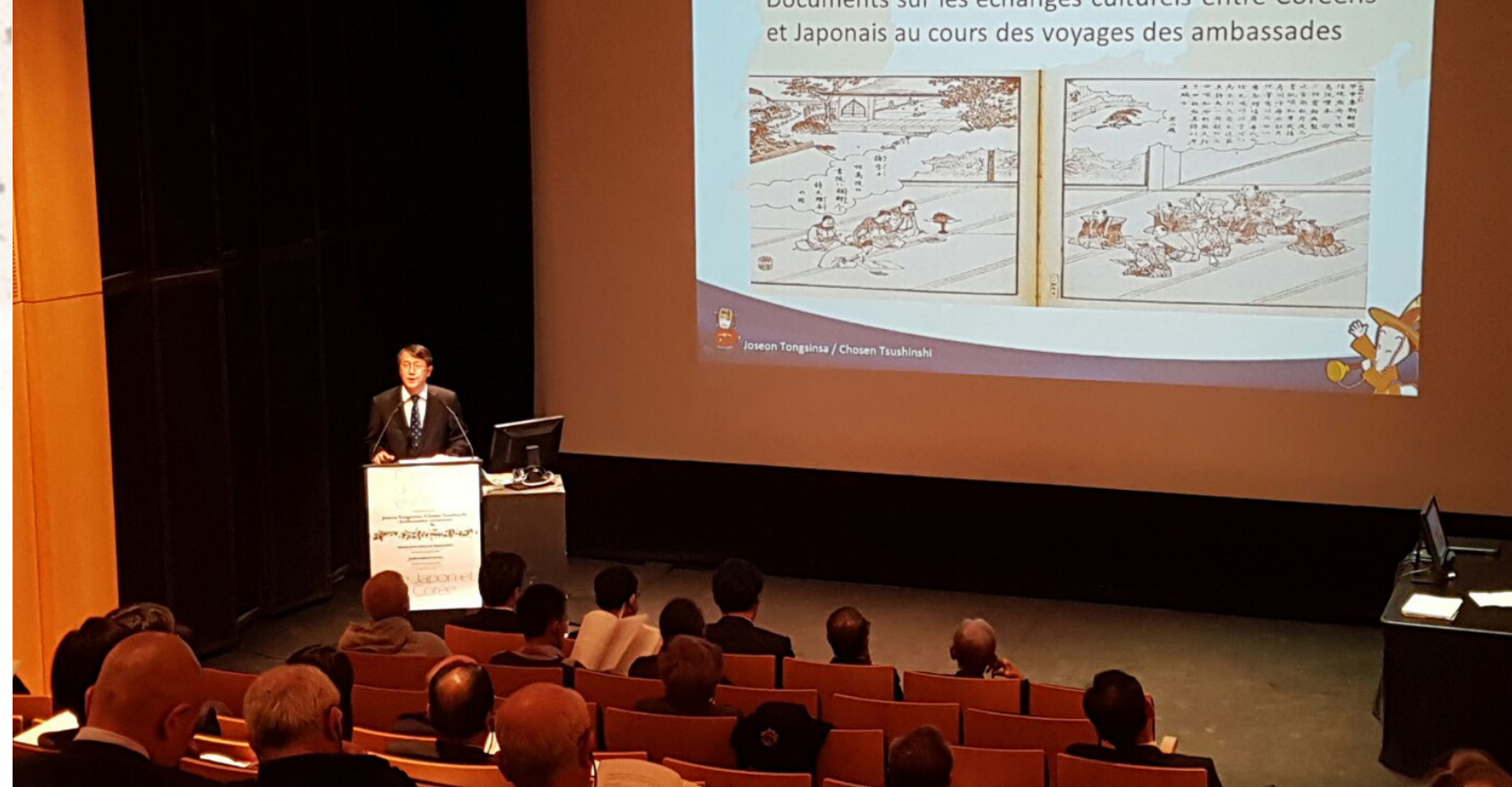
しかし、今回の登録事業は出発から違った。両国の政府ではなく、長い期間、朝鮮通信使の宣揚事業を進めてきた釜山文化財団と日本のNPO法人・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の二つの民間団体が主体となった。事実上、二つの団体を引っ張りながら、長い間の親交を深めてきた韓国側の学術委員長である姜南周(カン・ナムジュ)様と日本側の推進副会長である松原一征様が先立ってくれた。しかも、参加した人たちも「大系朝鮮通信使」を著述した仲尾宏様(日本側の学術委員長)をはじめ、「朝鮮通信使」に関する両国を代表する学者達であった。かれらはひたすらお互いの「学者としての良心」を信じ、共同会議を通し論議を重ねてきた。その結果、総111件、333点の朝鮮通信使関連の記録物が登録対象の目録に名乗ることができた。



2次日韓共同学術会議(日本長崎県、2015.01.31)



資料を検討している両国の委員達



▲パリでの広告活動(2016.11.15)

登録の確定後、日韓文化交流基金の主催「朝鮮通信使記録物UNESCO世界記憶遺産登録記念シンポジウム」(2017.11.3)をはじめ、「登録記念行事」(釜山文化財団、2017.11.25)、「朝鮮通信使の集まりIN対馬」(対馬市、2018.02.24)、「朝鮮通信使の日韓交流シンポジウム」(国立海洋博物館、2018.10.27)など、いろんな記念行事が両国で開かれた。また、登録1周年を記念し、記念図録と百書も製作された。両国の二つの民間団体はそれぞれ自国が所蔵している登録資料を中心とし、記念図録を作ってから、合本することを約束した。それによって、韓国から先に記念図録『朝鮮通信使に関する記録(韓国語版)』と百書である『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 韓・日共同登録2006日間の記録』(2018.10.25)を発刊した。

このように、登録後の2年目も忙しく過ぎた。しかし、これからは気持ちを切り替えて、申請書に作成した今後の計画がちゃんと実践できているか冷静に確認する必要がある。韓国の場合、申請書には既存の「朝鮮通信使歴史館」を「朝鮮通信使記憶遺産館」に拡大・改編していろんな所に分散された資料を一目で確認できるハープとして運営する青写真を描いた。しかし、「朝鮮通信使記憶遺産館」での拡大・改編、資料が集約されたハープの機能、その内一つもできなかったものがない。せめて「朝鮮通信使歴史館」のウェブサイトに加え、記憶遺産に登録された両国の資料すべてを確認できる空間がない。それに比べ、日本は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のウェブサイトに申請書に書いたものだけではあるが、両国の登録資料を一緒に紹介している。これからは、登録という甘い夢から目を覚まして、見せる行事よりも内室を固める時である。両国の二つの民間団体も、もう一度「朝鮮通信使ユネスコ世界記憶遺産日韓共同運営協議会」(仮称)の設置を通し、朝鮮通信使記録物を宣揚する具体的な計画を明確に立て行動に移すべきである。家の建物だけ立派に立てても、ちゃんと活用できないと何の意味もない。



田辺信宏 静岡市 市長

朝鮮通信使で繋がる 釜山と静岡

静岡市と釜山文化財団との交流は、2007年に開催した大御所四百年祭がきっかけとなる。以来、お互いに行き来を繰り返し、文化交流を図ってきた。2017年の朝鮮通信使に関する資料のユネスコ「世界の記憶」への登録を機に、さらなる文化交流の発展を図るとともに、朝鮮通信使の意義や役割を次世代を担う若い世代に継承する事業を展開していく。朝鮮通信使を今一度見つめなおし、朝鮮通信使で繋がれたこの関係をより一層深めていきたい。

静岡市と朝鮮通信使

静岡市における朝鮮通信使との関わりは、1607年に徳川家康が李氏朝鮮王国との国交回復のため、第1回の使節団を迎え入れたことに始まります。第1回の使節団は、往還ともに本市の清見寺に泊まり、富士山等の景観を楽しむとともに駿府城(静岡市)で歓待を受けました。

朝鮮通信使は国書の交換が主な役割ですが、日本の各地において文化交流を行い、朝鮮の様々な文化を日本に伝えるという役割も果たしました。家康公が願った「平和」と「善隣友好」は、家康公が亡くなった後も引き継がれ、使節団の派遣は約200年間・計12回に渡って継続されました。特筆すべきは、江戸幕府が善隣友好の精神のもと、国書を交わし続けたのは朝鮮王国だけであることです。この世界に誇れる輝かしい友好の歴史において、静岡市は第1回使節団を受け入れた徳川家康ゆかりの地として、意義のある場所であると感じています。

静岡市と釜山文化財団

静岡市と釜山文化財団の交流は、2007年に静岡市で行われた大御所四百年祭において、朝鮮通信使行列や公演に参加していただいたことが始まりとなります。その後、毎年5月に釜山市で行われる朝鮮通信使まつりへの静岡市からの芸能団体の派遣や、毎年10月に静岡市で行われる朝鮮通信使事業への釜山文化財団の参加など、互いに行き来を繰り返し、交流を深めてまいりました。

2017年10月には、関係者の悲願であった朝鮮通信使に関する資料111件333点が『朝鮮通信使に関する記録—17世紀~19世紀の日韓の平和構築と文化交流の歴史』として、ユネスコ「世界の記憶」に登録されました。そして、釜山市で開催された登録記念行事には、本市も参加させていただき、釜山文化財団とさらなる絆を深め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のユネスコ「世界の記憶」への登録を機に、「平和外交」「善隣友好」の象徴である朝鮮通信使を、これからの日本を担う若い世代に繰り返し繋げていくため、釜山文化財団と共に若い世代の交流を推進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これを受けて、2018年の朝鮮通信使まつりには静岡県立静岡商業高校応援団・チアリーディング部、2019年には中学生・高校生・大学生で構成される静岡城内一輪車クラブを派遣し、若い世代の交流を図ってまいりました。

一方、10月の静岡市での朝鮮通信使事業では、困難な壁が2度立ちはだかることになりました。1つは国家間の対立による関係の悪化です。これにより各地で予定していた日韓共同事業が次々に中止になり、本事業も中止が危惧されました。しかし、このような状況だからこそ、朝鮮通信使のもつ平和的意義を示すべきであるという思いから、お互いに調整を重ね、事業の開催を決定しました。

2つ目は台風19号の襲来です。交流事業等の予定日に静岡市に台風が直撃する予想となったため、やむなく当日の交流事業は中止を決定しました。しかし、朝鮮通信使がもたらした文化交流を伝えたいという熱い思いと関係団体のサポートにより、翌日に釜山の芸能団体による公演を開催するに至りました。当初予定していた規模での日韓の芸能団体の交流はできなかったものの、韓国の伝統芸能・音楽に触れ、朝鮮通信使の果たした役割や意義を感じられるよい機会になったと思います。

朝鮮通信使がつなぐ交流とこれから

このように、静岡市と釜山文化財団は朝鮮通信使による交流をより深めてまいりましたが、更なる交流深化を目的に、今後は朝鮮通信使を核としながら文化交流に力を入れ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2019年には「大道芸」を通じた交流を本格的に開始しました。静岡市は、毎年11月に国内外から大道芸アーティストを招いた「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を開催しており、静岡市にとって「大道芸」は馴染み深いものであります。今年5月に釜山市で行われた「朝鮮通信使まつり」には、静岡市から大道芸アーティストを派遣し、釜山市の多くの方々から静岡の「大道芸」を楽しんでいただきました。そして11月には釜山文化財団協力のもと、「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2019」へ釜山市で活躍するアーティスト3組に出演していただきました。このように静岡市と釜山市双方のアーティストを派遣し合うことで、文化交流の幅を広げています。

釜山文化財団とよりよい関係が結んでいるのは、400年前に日朝関係の回復に努めた徳川家康公が進めた平和政策の象徴である朝鮮通信使の精神が現在にも継承されているからです。朝鮮通信使にみる友好の歴史に光を当て、相互理解を一層深めるとともに、国際連合が目指すSDGsの取り組みを実践しながら、これからの世界平和とアジアの平和に大きく貢献できるような事業を展開していく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そして、朝鮮通信使の意義やそのもたらしたものを次世代に伝え、未来へ歩い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朝鮮通信使

JOSEON TONGSINSA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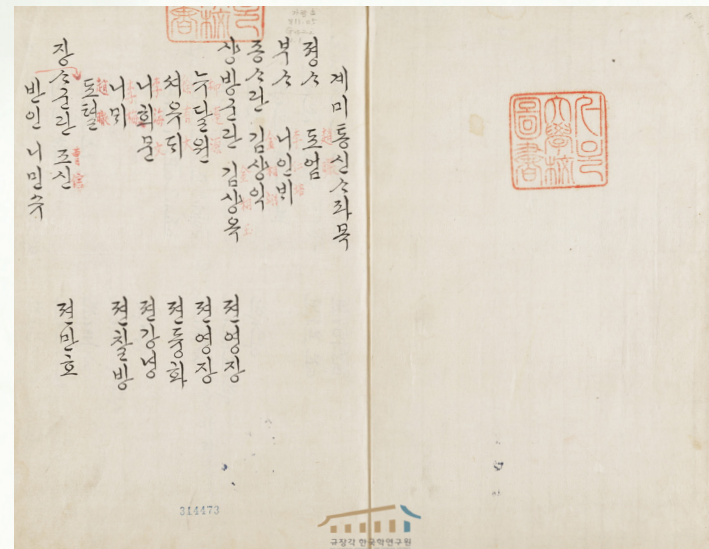
CONTENTS

- 04 **巻頭コラム**
田辺信宏 静岡市 市長
 朝鮮通信使で繋がる釜山と静岡
- 06 **誠信交隣**
韓泰文 釜山大学 国語国文学科 教授
 「朝鮮通信使記録物」の
 世界記憶遺産登録2周年、回顧と課題
- 08 **企画特集**
中島一彦 静岡市まちは劇場推進課推進監
朴鐘源、吳長晷、金仁基、李英周 韓国側のアーティスト
 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
- 14 **朝鮮通信使 24時**
釜山文化財団の文化遺産チーム
 朝鮮通信使歴史館お知らせ
 - 朝鮮通信使歴史館 NEWS
 - 朝鮮通信使国内縁故地キャンプ
- 18 **朝鮮通信使 ギャラリー**
朴花珍 釜慶大学 史学科 教授
 朝鮮通信使、静岡県のユネスコ
 「世界の記憶」を訪ねる
 清見寺の所蔵している記録物を中心として

日東壯遊歌

Illdongjangyuga

(Kim Ingyeom's poem written during a travel to Japan)



1763 | 金仁謙 | 冊子 | 紙本墨書 | 22.1 x 31.3cm | ソウル大学奎章閣所蔵

1763年(英祖)39年)通信使の書記として参加した金仁謙(1707~1772)の使行録である。

1763年8月3日の出発から、1764年7月8日の帰国までの

約11ヵ月の見聞を8,243句のハングルのみで記録したものである。

ハングルのみで書かれた使行文学で、

韓国と日本の旅程の場所に対しての個人の感情が豊かに表れている。

発行日 2019. 12. 19 発行人 姜東秀
 発行元 (財)釜山文化財団 釜山広域市南区牛岩路84-1(戩蠻洞)
 Tel 051.744.7707
 編集委員 韓泰文、白泰鉉、李珠英
 編集企画 文化遺産チーム 金甫美、姜珉奎、金芝恩
 Tel 051.631.0858 www.tongsinsa.com
 デザイン制作 コリア企画 Tel 051.204.7879

* 本誌に掲載された情報は、著者の個人的な見解です
 * 本誌に掲載された文と資料の利用をご希望の際には、(財)釜山文化財団及び著作権者両方より同意を得る必要があります。
 * 朝鮮通信使ジャーナルは(財)釜山文化財団及び朝鮮通信使文化事業ホームページからもウェブマガジンとして閲覧することができます。
 * 釜山広域市の2019年朝鮮通信使日韓文化交流の一環として制作されました。

(財)釜山文化財團 2019-021

WINTER 2019 冬号

朝鮮通信使

JOSEON TONGSINSA JOURNAL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www.tongsinsa.com